해결에 앞서 바르게 해석하라

(사무엘하 10:1~19)

1.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3.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4.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5.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6.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벧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이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라
7.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8.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결에 앞서 바르게 해석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해결에 앞서 바르게 해석하라'

문제 해결에 앞서서 먼저 바르게 해석하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오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서 이 작품에 대한 인상적인 해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희곡으로서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스 비극의 숙명을 밑바닥에 깔고 신의 부재와 인간의 낙원 추방을 그린 걸작"이라고 하는데, 무신론자인 알베르 카뮈가 신의 부재와 인간의 낙원 추방을 비극으로 그리려고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신 없이 사는 비극의 삶

을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의 부재를 그린 것은 신이 있다면 인간의 삶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낙원 추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는 낙원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실존임을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은 체코의 우중충한 깊은 산골을 배경으로 어머니와 딸 마르타가 여인숙을 경영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 마르타에게는 맑은 바닷물이 있고 태양빛이 가득한 남쪽으로 이사해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와 딸은 여인숙에 들어와 투숙하는 손님들 중에서 돈이 많아 보이는 손님에게 음식에 수면제를 타서 잠들게 하고 죽입니다. 돈을 갈취하고 시체는 여인숙 뒤에 강물에 버립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손님을 죽이고 돈을 빼내려 지갑을 뒤지는데, 신분증이 20년 전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자 오빠였습니다. 아들은 성공을 하고 돌아왔지만 이들을 놀래게 해주려고 신분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강물에 뛰어 들어 죽고 마르타는 목을 매 자살을 합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알베르 카뮈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자랐음에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작품이 대단한 점은 신이 없는 삶의 정곡을 찌르고, 인간의 삶에서 결코 낙원이 성립될 수 없는 핵심적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이 없을 때에 삶에서 비극이 초래되는 핵심적 이유를 오해로 본 것입니다. 인간만사의 모든 불행과 모순의 이유와 인간의 삶에서 낙원이 성립될 수 없는 본질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재적인 달란트를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천재가 신앙인은 아니기에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며 사람과 사건을 만나는 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창조주가 아닌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 오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하는 대로 다 오해이기 때문에 내게 행복이 주어질 수 없고,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이 뜻하는 대로 기쁨이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잠깐 기쁠 수는 있어도 다 사그라지고 말아버릴 가짜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적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문제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느끼고 해결하려는 행동 때문에 우리의 삶

은 파괴되어 갑니다. 마르타와 어머니가 오빠를 오해해서 죽인 것처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오해이기 때문에, 오해로 나타난 문제의식에 매여서 해결하려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데 오해가 핵심입니다. 타락한 삶이 낙원이 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삶이 오해로 점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또한 오해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방문하신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항상 이 오해가 문제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도입해보기도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설교 학교에 입학하여 과정을 수료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목사님들의 마음에 목회가 들어차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아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에 하나님이 꽉 들어차 계셔야지 목회가 들어차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똑같습니다. 사업하는 장로님들의 마음에 사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업이 힘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가지면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자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차기 전까지는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다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에 근거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목회가 재미없고 사업에 즐거움이 없고 자녀를 키움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오해로 인해 에덴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의 전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래로는 사해가 있고 요단강을 종으로 가로지르는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옆에는 모압이 있었고 그 바로 위쪽에는 암몬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암몬의 나하스 왕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며 다윗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윗과 친분관계(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지만)가 있었던 나하스 왕이 죽게 되었고, 다윗은 애도하는 뜻에서 왕위를 승계한 하눈에게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라는 다윗의 순수한 호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대신들은 이에 대해 오해하여 다윗이 정탐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첩자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 젊은 왕에게 잘못된 해석을 전합니다.
암몬은 다윗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스스로 오해하여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라며 지레짐

작하여 군대를 준비하고 암몬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용병으로 끌어들이며 전쟁을 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요압과 아비새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용병이 패한 것으로 인해 분노한 아람 왕이 전쟁을 걸어오게 되고 그들 또한 다윗이 출정하면서 멸절되게 됩니다. 오해 한 번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망하고 두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전에는 화친의 의미에서 조공을 보냈지만 이제는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며 진행되어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부 오해합니다.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을 때에 그냥 감사로 받았으면 되는데, 첩자를 보낸 것으로 오해한 것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와 이웃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오해이기 때문에 작은 생각이든 큰 생각이든 작은 판단이든 큰 판단이든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윗의 호의를 적의로 음모로 오해한 암몬의 대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호의의 범위와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의 생각의 범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들의 범위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처 포착하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라면 내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렘29: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라고 하십니다. 내게 병이 나고 사업이 어렵고 자녀가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허락하신 평안의 일인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평안으로 느끼기는커녕 재앙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좋은 것들에 대한 범위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너무 좁게 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의 범위는 지구 바깥으로까지 연장되고, 인간 세상 바깥 세계로까지도 확장되어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전부 이 지구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진짜 좋은 분이라는 말을 성경은 거룩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심’은 좋은 방향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게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으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의 경계 안에 묶여서 주어지는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처럼 보이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 가장 좋으신 분인 하나님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은 문제가 아닌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호의를 곡해했던 암몬의 대신들처럼 하나님의 호의를 저항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를 따져서 감사하고 대적하고 극복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존재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가지도록 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낄 때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돈이 안 벌리는 것이 문제로 느껴지고 몸에 병이 난 것이 문제로 느껴진다면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몸에 병이 나고 돈이 없어도 내일 굶게 되더라도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카뮈는 ‘오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에서 빛이 날 만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는 믿지 못할 지라도 생각으로라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몸이 만나는 환경 이 세상의 상황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주님께서 교제하고 계신 것처럼 내 마음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관계에 참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아버지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되었으므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순교를 문제로 생각하고 극복해야 될 장애로 생각한다면 누구도 순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치다 잡혀서 죽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이 만 명이 넘고 휘황찬란한 예배당을 지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개척하고 10년이 지나도록 2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누가 더 하나님을 가지기 쉬울까요? 어차피 하나님을 가지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내 자식조차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데, 만 명의 교인과 휘황찬란한 예배당을 가진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죽으려면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10년 목회에 20명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야말로 더 쉬울 것이고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가 안 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갖기에 편하다고 감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불평은 오해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에 대한 생각 또한 오해 자체입니다. 언젠가는 병들어서 죽는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것입니까? 지금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괴로운 줄을 아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몸으로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갖게 될 것

입니다. 아버지를 갖고 이 세상의 삶을 보면 아버지 생각과 판단을 오해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오해가 극복된 낙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